

202504

수  
마  
나  
마  
영  
심  
꿈  
꿈



# 소망헌혈

생명나눔캠페인 2025

‘소망헌혈’은 회복의 사순절을 보낸 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눔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역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난치병 환우를 위한  
지속성과 진정성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프로젝트에도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및 참여 방법



**신청** 2025. 3. 14(금) - 4. 20(주일)

**일시** 2025. 4. 20(주일) 오전 08:30 - 오후 4:00

**장소** 본당 앞 헌혈 버스 : 신분증 지참

**신청서 QR 코드**

사랑 실천에 동참해 주세요.



202504

소망  
말씀  
나눔  
집

© 2025 소망교회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목상집(소망말씀나눔)은 서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 CONTENTS

April | 2025



## FAITH

하늘을 여는 기도  
굳어 버린 마음을 고치소서 4

깊어지는 영성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 김경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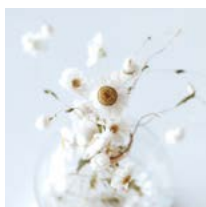
목상에 붙임  
당신이 상처받았던 그날에 | 월터 브루그만 10

## WORD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준비·이해·적용·기도 14

말씀 개관  
누가복음 16

4월 본문  
누가복음·열왕기상·고난주간 본문 20  
1주(4/7) | 2주(4/14) | 3주(4/21) | 4주(4/28)



## COMMUNICATION

땅끝에서 온 편지 은혜로 내딛는 복음 사역   이준희·박소은	48	가정예배 4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178
소망사랑방 생명의 강물   조정태	80	소망이 가득한 곳 기쁨의 예수님   박준우	184
말씀과 걷다 누가의 기록 : 그리스와 사도행전의 여정   홍성민	116	예배자의 길 4월, 우리의 고백   최순옥·안진현·김경연	186
공간공감 스팀슨관   홍성찬	152	위로 365 마음이 아픈 그리스도인을 위한 위로   이상익	190
이달의 기도 주의 성숙한 백성이 되기까지	172	성경과 상징 귀   교원석	194
믿음's life 용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조준식	174	소망뉴스 4월 소식	198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은 겸손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으로 오셨건만,  
우리는 나를 자랑하며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 안간힘을 씁니다.

주님,  
교만으로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깊어지는 영성

#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글 김경진



공관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비교적 짧고 단순합니다. 기도의 핵심 가치가 압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눅 11:2)*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기회에는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눅 11:3-4)*

첫 번째는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매일’ 또는 ‘필수적’이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은 ‘매일의 양식’과 ‘꼭 필요한 양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날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먹을 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양식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이 채워지는 아름다운 양식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듭니다. 매일의 양식은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어 결국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로 끝납니다. 그러니 이 기도들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죽나요? 용서가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요? 언뜻 보면 용서는 삶에 부차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려 주고 계십니다. 용서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그리고 서로 받고 나누는 용서는 양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양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용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실수하고 판단에 오류가 있으며 정욕을 이기지 못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도 모두 부족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나약함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만약 그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파멸의 길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서로 용서하며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죄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34)*



주님은 자기에게 못을 박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에게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참 크고 놀라운 용서의 차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을 예상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지금은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도 많고 죄도 많습니다. 서로를 향한 분노를 가지고 각자 정의를 외치지만, 이것은 나라와 우리를 모두 살릴 수 없는 길입니다. 용서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내가 살고, 우리가 살며, 사회가 살 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며, 용서로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용서로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빛, 주님의 등불 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당신이 상처받았던 그날에

글 월터 브루그만

신실함과 공화로 매일 우리를 지키시는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위를 맴도는 또 다른 기운, 우리를 무력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끔찍한 죽음의 힘을 감지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세상이 언제나 파괴의 일로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식지 않는 분노와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  
불타오르는 야만을 봅니다.  
우리는 야만의 흔적을 잔인과 가난과 배고픔으로 가득한 세상 곳곳에 새깁니다.  
죽음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많은 날 중 특히 오늘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크고 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감쌉니다.  
오늘 세 시간 동안 암흑과 큰 지진을 겪었을 때  
괜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벌벌 떨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무자비한 죽음이 사납게 뛰놀았을 때  
괜히 제자들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무력감에 젖어  
자포자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마을의 놀이터와 같습니다.  
한낮에 그곳은 신나게 노는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이내 밤이 찾아오고 아이들이 사라지면  
놀이터에는 적막만이 맴돌고  
놀이터는 공포와 두려움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오늘, 성금요일은 아이들이 사라진 한밤중의 놀이터,  
가장 깊은 어둠에 잠긴 놀이터와 같습니다.  
견잡을 수 없는 공포가 닥쳐오고  
우리의 말문은 굳게 닫힙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침묵만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속수무책의 모습 그대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당신을 기억합니다.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죽음의 무서운 위협과 강력한 모습은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공포, 두려움, 상처를**  
**우리가 이때까지 헤아리지 못한 상실과 고통 모두를**  
**예수의 죽음이라는 전 우주적 슬픔이 모읍니다.**

**우리는 그 참혹했던 금요일의 순간,  
당신이 상처받았던 그 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냅니다.**

주님, 어둠과 큰 지진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우리에게 죽음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과  
죽음의 능력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입을 주소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지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침묵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당신께서 이 모든 와중에도 우리를 더욱 살피시기를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를, 모두를 치유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 또한 피할 수 없었던 죽음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은 숨을 거두셨지만 사라지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불씨는 희미해졌지만 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죽음마저 초월하는 생명의 능력과  
새로움의 약속이 당신의 것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능력과 약속 안에서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숨김없이  
당신을 나타내소서. 아멘.

- 월터 브루그만 『예언자의 기도』(비아, 2020) 277~279쪽.